FLUTE

-기명악기, 다른 목관들과는 달리 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관에 바람을 넣는다.

-뚫어진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거나 열어서 음고를 조절한다.

-현대에 사용되는 플룻의 키 시스템은 1847년 독일인 '테오발트 뵘'에 의해 완성됨

ㄴ 일명 '뵘 시스템'이라고 불림. 플룻을 위해 개발한 운지법이지만, 클라리넷, 색소폰, 바순 등도 뵘 시스템의 영향을 받았음.

-종류 : 피콜로, 알토 플룻, 베이스 플룻, 콘트라베이스 플룻, 서브-콘트라베이스 플룻 등이 있

ㄴ 콘트라베이스 플룻은 한국에 '존재'는 함, 서브-콘트라~는 한국에 없다고 알려짐.

-음역은 전부 C키, 알토 플룻만 G키로 예외. 베이스 플룻은 한 옥타브 밑, 콘트라베이스의 경우는 두 옥타브 밑이다.

(1) 플룻을 활용한 현대주법

1. 소리를 확장하는 효과

-1. 플러터 텅잉(Flutter Tongue) : 목젖을 떨어서 내거나 혀를 'r'발음으로 굴려서 내는 기법. 목젖으로 할 때 조금 더 뚜렷한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, 연주자 선생님 말씀으론 아직까지 굳이 목젖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(차이는 무방할 듯?).

ㄴ Notation : 트레몰로 표기를 해주고 flz. , (flt.) 등올 표기를 한다고 함.

-2. 하모닉스(Harmonics) : 배음을 낼 수 있는 플룻의 기본 원리를 근거로 하여 한 운지에서 기본음 대신 더 높은 음을 낼 수 있는 주법

ㄴ 잡을 운지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기, 실음을 원래 음표대로 표기해준 후, 그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굳~

ㄴ 연속으로 다양한 음들의 하모닉스를 원한다면 위에 점선 슬러를 표기해준다고 함

-3. 휘슬 톤(Whistle Tone) : 배음에 근거를 둔 높은 음역 안에서의 아주 작은 휘파람과 같은 소리가 나게 하는 주법. 1옥타브 내의 기본 운지로부터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, 운지에 따라 변화하는 스펙트럼은 배음음계에 따라 달라짐.

ㄴ 1 옥타브 내의 음역에서 한 음을 잡고 쭉 늘린다.

ㄴ 음을 바꾸고 싶으면, 하고 있던 휘슬톤을 끝내고 바꾼다.

ㄴ 정확한 음정을 불어주지는 않으며, 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플룻 계열에서만 가능한 주법

ㄴ 현악기의 하모닉스와 볼륨, 음색이 상당히 잘 맞음

ㄴ 다이나믹이 너무 크면 현실성이 없다

-4. 젯 휘슬(Jet Whistle) : 공기의 폭발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 주법. 플룻의 마우스피스를 입술로 물 듯이 완전히 막고, 강한 공기를 폭발하듯 세게 내뿜는다.

ㄴ 1옥타브 내의(D#까지) 음정을 넘어서게 되면 음정이 계속 맴돌게 된다.

ㄴ Notation : 표기법으로 곡선 화살표를 사용하지만, 직선 화살표를 사용해도 무방

ㄴ 하얀 동그라미 안에 점을 찍어주면 주로 'airsound'라고 하는데, 젯 휘슬에서도 많이 사용한다

ㄴ Jet Whistle / J.W 등 다양한 표기법이 있다.

-5. 트럼펫 앙부쉬르 : 트럼펫의 앙부쉬를 사용해서 마우스피스 홀을 통해서 불어내는 테크닉. 헤드 조인트가 아닌 바디 조인트로 불어낸다. 입술의 긴장과 공기의 압력 그리고 공명되는 공간의 조화를 통해 얻을 수 있

ㄴ Notation : 'Trumpet embouchure'

ㄴ 이 테크닉 앞 뒤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며, 연주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함

-6. 노래와 동시에 연주(Singing and playing) : 가사를 넣는게 아닌 인성만을 동원한 테크닉.

ㄴ Flute, Voice 등 2개의 단을 통해서 표기해야 함

2. 타악기적 효과

-1. 피치카토(Pizzcato) : 혀와 입술로 하는 피치카토로 구분된다. 소리에는 큰 차이가 없다

ㄴ Tounge Pizz. : 혀 끝으로 취구를 치듯이 내뱉음으로 얻는 주법

ㄴ Lip Pizz. : 두 입술 사이로 강한 공기를 폭발하듯 내뱉는 주법.

ㄴ 1옥타브 이상 음정이 올라가면 실음정은 계속 그 1옥타브의 것을 빙빙 돈다

ㄴ 피치카토 하면서 오버블로잉은 힘듦

-2. 키 클릭(Key Click) : 키를 강하게 쳐서 얻어내는 주법.

ㄴ 음표를 X로 표기함

ㄴ 다이나믹은 역시 무조건 강하게 나가줘야 한다. / 액션에 가까운 테크닉이기 때문

-3. 텅 램(Tongue Ram) : 플르트의 음정을 7도 낮게 그 음을 확장시키는 강한 어택, 의도적으로 울리게 만든다

ㄴ T.R. 이라고 표기해줌

ㄴ 실 운지포인트는 다이아몬드로 표기 후 괄호를 붙여준다, 울릴 음은 역삼각형으로 표기

ㄴ 얘도 1옥타브 내의 음정일 때 효과적. 와인 코르크 따는 소리가 난다.

ㄴ 피콜로는 그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.

-4. 비브라토 : 현대음악에서도 비브라토를 하나의 주법으로써 활용할 수 있음

ㄴ n.v(non vibrato) , m.v(molto vibrato) 등으로 표기 가능

ㄴ 비브라토의 진폭이나 속도를 곡선, 그래픽으로 표현하기도 함

4.5 트릴 : 미분음 표기를 동반한 트릴을 사용하기도 함

-5. 바람소리(Air sounds) : 공기음향을 가지고 음색을 변화시키기에 적합함. 일반적으로 제 1옥타브의 운지 내에서 활용

ㄴ 다이아몬드로 표기됨. 아무 운지도 안 잡고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타악기 보표를 주로 사용한다.